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강민채

국 문 초 록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민선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민선자치단체장 5기를 넘어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지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의 범위를 좁혀 민간이전경비 재정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음 선거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이전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공금인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간이전경비가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강점인 영역의 다양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이전경비 규모를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킬 유인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운용에 대해 주민들이 정치적인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함과 더불어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증가할 것이다’이며, 연구대상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후에 다음 선거인

제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민간이전 경비로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06년에 당선되었던 현직단체장이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이다.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분석 결과,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이전경비 운용이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증가라는 정치적 지지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간이전경비를 늘릴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이전경비 운용에 대한 선심성, 정치적인 배분에 대한 지적과 문제점들은 이러한 유인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해 개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민간이전경비의 양적인 증가를 곧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적인 운용의 결과로 일반화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이전경비를 증가시켜 자신의 지지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운용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보다 설명력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포함된 변수 이외에 주민의 지방자치단

체장 행정에 대한 만족도, 지역 경제수준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민간이전경비, 정치적 평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

학번 : 2010-2201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이론적 논의	8
1. 민간이전경비의 의의 및 현황	8
2. 이론적 논의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지방재정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연구	14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5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18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18
제2절 연구 설계	19
1. 연구대상	19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20
3. 연구의 분석틀	27
4. 연구의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28

제4장 실증 분석의 결과	32
제1절 기술통계량의 확인	32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32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6
3. 선거 측면	38
제2절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41
제5장 결론	4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48
1. 연구결과의 요약	48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4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4

표 목 차

<표 1> 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5
<표 2>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5회 지방선거 출마 결과	7
<표 3> 민간이전경비 세목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9
<표 4>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세목별 분석	10
<표 5>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17
<표 6> 변수의 설정과 자료출처	26
<표 7> 각 변수의 변수명과 정의	31
<표 8>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33
<표 9> 3선 도전여부와 선거결과	34
<표 10> 정당공천여부와 선거결과	35
<표 11> 지역에 따른 구분과 선거결과	36
<표 12> 지방자치단체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	37
<표 13> 민간이전경비의 기술통계량	38
<표 14> 득표율에 따른 구분과 선거결과	39
<표 15> 선거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	39
<표 16> 후보자수와 선거결과	40
<표 17>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에 미치는 영향	41

그림 목 차

<그림 1> 민간이전경비의 세목별 규모 추이	11
<그림 2> 이론적 분석틀	18
<그림 3> 개념적 분석틀	27

제1장 서론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민선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체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지지로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민선자치단체장 5기를 넘어서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의사반영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범위를 좁혀 민간이전경비에 관한 재정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음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민간이전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공금인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간이전경비가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강점인 영역의 다양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된다(조기현·하능식, 2008).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음선거에서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이전경비 운용은 보

다 자신의 지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이전경비가 정치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우선의 목표인 재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 및 유지하는 수단으로 민간이전경비를 선심성·낭비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이 재선을 의식해 인기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에 따라 예산결정이 이루어짐을 지적한 연구(강운호, 2000)에서와 같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을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의식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이 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선심성적인 운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출규모에 대한 제한과 경비 운용과 관리에 대한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민간이전경비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기 위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통제방법 변화 및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2012년 최종예산 순계 151조 950억 4000만원¹⁾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직전 해인 1994년의 예산 약 36조원과 비교해 볼 때, 약 4.2배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로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2010년 민간이전경비(민간이전비목과 민간자본이전비목으로 구성됨)의 경우 민간이전의 비목은 16조 8985억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비목으로는 6조 156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139조 8564억 84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민간이전경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과 지방재정의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민간이전경비의 사용이 선심성·정치적인 목적 혹은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대해 비판이 있어왔다.(조기현, 하능식. 2008) 또한 보조금의 잘못된 교부는 공적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며, 정치적 성격을 띤 보조금이 지방 선출직 공무원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민간단체를 관변 조직화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허강무. 2002).

기존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연구는 민간이전경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만을 지적해왔다(조기현, 하능식. 2008). 그러나 민간이전경비를 선심성,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수단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가

1) 재정고, 지방예산현황 자료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수단 및 선심성, 낭비성으로 운영될 유인이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민간이전경비의 기준 및 운영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용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보조금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실익은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민간이전경비의 모호한 과목구분의 개정 필요성의 근거를 보강하고,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민간이전경비에 반응하여 주민들의 정치적 선호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주민의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높이며, 예산에 운용 및 집행에 대한 통제기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초단체 수준에서 분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운용이 주민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의 득표율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시, 현 2012년 시점에서 약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할 시에 개체수가 늘어나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의 지방재정 운용 후에 다음 선거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이 주민의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후에 다음 선거인 제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2년 현재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5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낙선과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목록은 <표 1>과 같다. 무투표당선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기 조건에 만족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27개 이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진해, 마산, 창원 통합으로 개편이 된 창원시를 제외한 1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표 1> 4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서울강남구, 서울광진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노원구, 서울성동구, 서울성북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중구, 서울중랑구
부산광역시	부산강서구, 부산금정구, 부산북구, 부산사하구, 부산수영구, 부산연제구, 부산영도구, 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서구) (부산남구)
대구광역시	대구남구, 대구달서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인천광역시	인천강화군, 인천계양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인천연수구, 인천중구, (인천옹진군)
광주광역시	광주남구, 광주동구, 광주북구, 광주시구
대전광역시	대전대덕구, 대전동구, 대전유성구, 대전중구
울산광역시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중구
경기도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광명시, 경기광주시, 경기구리시, 경기김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부천시, 경기성남시, 경기양주시, 경기용인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이천시, 경기평택시
강원도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삼척시, 강원속초시, 강원양양군, 강원원주시, 강원인제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태백시, 강원화천군, 강원횡성군, (강원도영월군), (강원도양구군)
충청북도	충북괴산군, 충북영동군, 충북증평군, 충북진천군, 충북청주시
충청남도	충남계룡시, 충남공주시, 충남금산군, 충남보령시, 충남서천군, 충남예산군, 충남천안시, 충남청양군, 충남태안군
전라북도	전북고창군, 전북군산시, 전북김제시, 전북무주군, 전북순창군, 전북완주군, 전북익산시, 전북장수군, 전북전주시, 전북정읍시, 전북진안군
전라남도	전남강진군, 전남고흥군, 전남곡성군, 전남광양시, 전남구례군, 전남목포시, 전남무안군, 전남보성군, 전남순천시, 전남여수시, 전남완도군, (전남영암군)
경상북도	경북경산시, 경북경주시, 경북구미시, 경북김천시, 경북문경시, 경북상주시, 경북영덕군, 경북영양군, 경북영주시,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경북칠곡군, 경북포항시, (경북의성군)
경상남도	경남거창군, 경남고성군,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경남진주시,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 (경남창원시)

* 괄호 안의 지방자치단체는 무투표당선 된 지역과 경남 창원시

연구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총 13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출마하여 78명이 당선되었으며, 5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낙선하였다. 따라서 58.2%의 당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 3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2006년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도 재선된 후 이번 2010년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3선에 도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수는 34명이며, 이 가운데 15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어 3선을 이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다. 2010년 총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재출마하여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126개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58.2%인 78명이 당선되었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출마한 경우 연임되는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5회 지방선거 출마 결과

5회 지방선거	선거	해당자 수	
당선	무투표당선	7명	78명
	3선	15명	
	2선	56명	
낙선	3선 도전	19명	56명
	2선 도전	37명	
		총 134명	당선율 58.2%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 4기 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 다음 해인 2007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2009년까지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민간이전경비 및 기타 행정 및 재정운용에 관한 변수는 시간적 범위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선거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당해 제 5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을 시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민간이전경비의 의의 및 현황

민간이전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공금인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간이전경비의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민간이전경비의 세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조조금, 사회복지보조로 이루어진다.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수행하도록 할 시에 수반되는 경비나 개인적인 보상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경직적이고, 비용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과 같은 세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나 행사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

민간이전경비의 순기능으로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강점인 영역의 다양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과 지역 내에 사회 자본을 축적시키는데 기여하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표 3> 민간이전경비 세목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성목	세목내용
3 0 7 민 간 이 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2.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사 항목의 비용
	02. 민간경상보조금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3. 사회단체보조금
	1.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04. 민간행사보조금
	1.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5. 민간위탁금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06. 보험금	
1. 보험금, 재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8. 이차보전금	
1.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10. 사회복지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출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민간이전경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 이후로 전반적인 팽창추세에 있다. 아래 <표 4>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의 민간이전경비는 약 16조 8천억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매년 그 전체의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 세목들의 세출 크기 역시 해가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민간이전경비의 전체적인 규모가 상승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 등과 같이 경직적이고, 보상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 이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과 같은 세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나 행사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보다 재량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규모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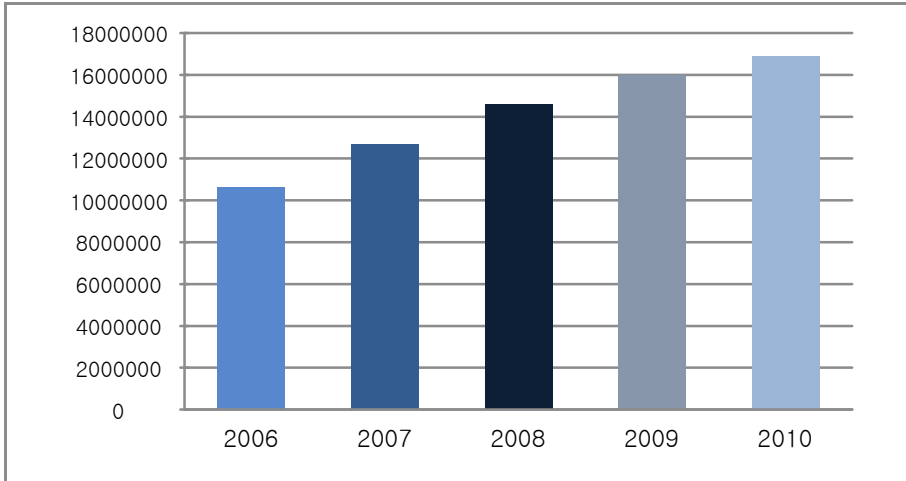
<표 4>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세목별 분석(2006년-2010년)

(단위: 백만원)

	307-01 의료및 구료비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307-03 사회단 체보조 금	307-04 민간행 사보조 ·위탁	307-05 민간위탁 금	307-06 보험 금	307-07 연금지 급금	307-08 이차보 전금	307-09 운수업 계보조 금
2006	904,645	4,140,413	291,584	461,437	3,060,097	4,361	26,073	67,862	1,674,391
2007	891,913	5,150,873	229,687	482,848	3,604,390	6,025	25,616	76,571	2,217,623
2008	819,571	6,109,412	212,225	563,369	4,267,346	7,687	26,979	94,134	2,505,005
2009	882,001	6,705,460	192,725	526,802	5,055,416	13,220	27,011	136,141	2,445,572
2010	824,585	6,471,836	170,384	559,542	6,224,926	17,175	29,936	147,930	2,452,189

출처: 재정고, 지방재정연감, 세출 순계

<그림 1> 민간이전경비합계 규모의 추이 (단위: 백만원)



2. 이론적 논의

민간이전경비의 특정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의 지속과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예산점증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린드블럼(Lindblom)이 1959년에 일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점증주의(incremental decision making theory)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을 토대로 형성된 이론이다. 인간이 의사결정시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최적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모색 능력이 사실상 제약되어 있어 예산결정에 있어서도 점증주의와 유사한 결정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결정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전년도의 예산에서 작은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장점으로 정치적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반발·저항을 극소화하며, 특정 부문의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예산과정에 참여

한 관리자들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편성방법은 과거의 예산이 너무 불합리하게 편성되었을 때에는 예산 편성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되는 데도 혁신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민간이전경비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민간이전경비가 지급되는 단체의 경직성을 볼 때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의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전경비를 둘러싼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 관료의 정치적, 편의적인 의사결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받아야 할 새로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보다는 관행적인 예산배분으로 기존의 민간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정치적인 마찰을 피하거나, 업무의 증가를 회피하려는 관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 민간이전경비가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 자치단체장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단체 및 사업을 유지 및 경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에 관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이라 지적이 되는 문제점은 정부의 제도 운영이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병폐와 도덕적 해이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이전경비의 배분의 결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정치적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이 저해되기 쉽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 관료들은 재량적인 결정이 가능한 민간이전경비 부문의 경비 지원 및 운용에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유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세목 구분의 모호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민간이전경비제도 운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기의 선거를 의식하여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에 따르기 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간이전경비를 배정받는 집단의 측면에서 그 집단 활동에 대한 이해는 이익집단모델(interest group model)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익집단은 집단 내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여 부분적인 소수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행동하는 집단을 말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이 특정 단체 및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조기현·하능식, 2008), 이와 같은 이익집단모델의 영향력의 행사가능성과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강력하게 저항한다(Muller and Murrel, 1986)는 측면을 고려하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수혜를 입는 이익집단이 민간이전경비를 기존의 관행대로 유지하게 하도록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민간이전경비 재편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았을 때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의 주안점이 되는 민간이전경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는 본 가설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세출 항목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즉 정치적 지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로써, 모호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지급과 비효율적인 사용 등이 문제됨을

지적인 연구(허강무, 2002; 강태구, 2007; 조기현·하능식, 2008)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로 양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재정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연구

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 예산에 관한 연구들은 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를 포함한 예산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허강무(2002)의 연구는 보조금의 잘못된 교부가 공적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며, 정치적 성격을 띤 보조금이 지방 선출직 공무원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민간단체를 관변 조직화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행정과 예산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행정의 법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강태구(2007)의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필요성으로 정부는 사회단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여론을 용이하게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사회단체의 연구를 전라북도 본청과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단체의 정의의 불분명성과 사회단체 사업 지원 기준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방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조기현, 하능식(2008)의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이 세목들의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 획일적 배정에 따른 증가 실태를 살펴보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구분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기(1999)의 연구에서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을 통하여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제시가 정치적지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나라당의 공천유무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유권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경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현직 기초단체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약 28% 득표율 향상을 가져왔으며, 기초단체장이 보여준 리더십 또는 비전을 보여준 경우 그렇지 않은 단체장 보다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도전을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 이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로 당락과 득표율을 사용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행정서비스, 시장의 특성, 지자체의 특징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Peterson의 정책유형별 주민의 공공서비스의 만족이 재선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만족, 가계소득의 증가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향상 등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단속이나 점검의 강화나 도심시설 이용의 개선은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특성 부문에서는 정당공천

이 당선에 영향을 주고, 선거공약의 실천과 행정인 정치인 기업인으로서의 경력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선거구내에 입후보자가 적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상석·강주현 (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지출이 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을 Peterson의 분류에 따라 할당정책(allocation policy)관련 지출, 재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관련 지출, 그리고 경제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을 위한 지출인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지출이 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정가로서의 경력과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가 단체장 연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단체장의 나이와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의 수는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나이와 경쟁자의 수가 적을수록 재임에 유리하다는 경향을 보였다. 출마자의 교육수준과 지방세 총액은 대체적으로 단체장 연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아 외(2008)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투표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정성과를 나타내주는 2005년에 발표된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현직단체장의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의 득표율이다.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은 현직단체장의 득표율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의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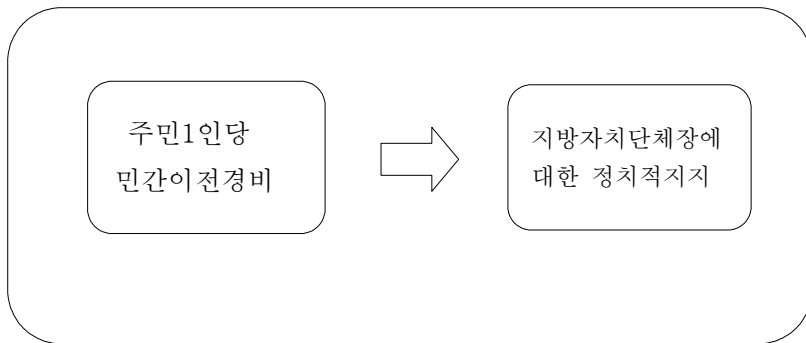
<표 5>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김정기 (1999)	연구 주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을 통하여 보여준 리더십 과 비전제시가 정치적지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 - 경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	현직 기초단체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 기초단체장이 보여준 리더십 또는 비전(+)
최승범· 이환범 (2006)	연구 주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도전을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으 로서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 이었는지 분석
	분석 결과	재출마 시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행정서비스 부문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만족(+), 가계소득의 증가(+) 지역 의료서비스의 향상(+) 단속이나 점검의 강화(-), 도심시설 이용의 개선(-) 선거공약의 실천(-) -시장의 특성 부문 정당공천(+), 행정인경력(-), 정치인경력(-), 기업인경력(-)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선거구내에 입후보자(-)
배상석· 강주현 (2006)	연구 주제	재분배정책 지출 및 경제개발정책 지출이 시장의 연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연구
	분석 결과	- 시 단위의 분석 재분배정책 지출(+), 경제개발정책 지출(+), 정부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가로서의 경력(+),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가로서의 경력(+),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단체장의 나이(-),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의 수(-)
김형아 외(2008)	연구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현직단체장 에 대한 투표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
	분석 결과	재정점수(-), 경쟁 후보자수(-), 정당공천여부(+), 공무원경력(+), 기업인경력(-), 충청지역(-), 지난선거 득표율(+)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틀 속에서 민간이전경비 운용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2> 이론적 분석틀

지금까지 지방재정운용과 관련된 변수들이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재정의 건전성 혹은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출인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른 구분과 같은 연구가 이뤄졌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및 민간이전경비를 포함한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로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체적으로 민간이전경비라는 세출항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이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예상은 민간이전경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로 선정하였다.

제2절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민간이전경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다음 선거인 제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현재 230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5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거나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34개 이다. 그 중에서도 2010년에 무투표당선으로 선출된 7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득표율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고, 2010년 7월에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되어 재정관련 변수의 크기를 산출하기 어려운 창원시를 제외하여 총 1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2006년에 당선되었던 현직단체장이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이다. 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제 5회 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단체장을 대상으로 당선 여부,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제 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한 임기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해당 동일지역에서 재정 운영을 맡은 단체장의 지난 임기의 업적을 통한 정치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지지는 제 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 뿐 만 아니라 당선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득표율로만 단체장의 지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목표는 재선이 되는 것이지만, 당해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높았을 때, 재선이 될 가능성 역시 높아 지므로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에 따른 정치적 지지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득표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종속변수로 당선여부와 득표율의 경우로 나누고 있으나, 당선여부로 종속변수를 설정했을 때와 득표율로 종속변수를 설정 했을 때의 결과 값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정치적 지지를 득표율로 측정하도록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의 수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통계에서 얻었다. 역대선거정보통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당선자에 대한 신상정보(정당, 나이, 학력)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득표율 현황도 알 수 있

으므로, 역대선거정보 통계에서 구한 백분율 자료로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우와 당선된 경우의 득표율을 수집하였다.

2) 독립변수 :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민간이전 경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이전경비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로 나누어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로 구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제 4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개년도의 자료로 독립변수는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구하고자 한다.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금액의 크기와 분포를 표준적인 분포에 가깝게 하고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자연로그로 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재정고의 지방재정연감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원단위로 수집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들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선거와 관련된 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구분된다. 먼저 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선거와 관련된 변수로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얻은 이전 득표율, 후보자의 수(선거 경쟁도 측정),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

수로는 경력(행정인, 정치인, 교수 및 학자, 기업인), 학력, 나이, 3선 도전인지 여부, 정당공천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①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에 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②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반영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 인구의 변화로 그 지역의 규모 및 발전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구의 대소에 따라 득표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인구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③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지방세액과 세외수입액의 합인 자체수입을 주민수로 나누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으로써, 재정자립도와

일인당 평균 세외 수입액, 일인당 평균 지방세 징수액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을 참고하여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 추가하였다.

(2) 선거와 관련된 특성

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얻은 이전 득표율

기존 4기 선거에서 득표율을 많이 얻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지지도가 높았으므로 민간이전경비의 운용과 관련된 영향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높은 지지도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역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이전 득표율을 통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인 김형아 외(2008)연구에서도 지난선거 득표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고 있으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② 후보자의 수(선거 경쟁도 측정)

선거에서의 경쟁도가 치열할수록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의 경쟁도를 측정하는 방법엔 당선자와 차순위의 득표율간의 차이로 구하는 방법과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최승범·이환범, 2006; 김형아 외, 2008)에서 입후보자의 수로 당선자의 경쟁도를 측정하는 것을 따라 후자의 방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로 당선자의 경쟁도를 측정하였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단독출마로 무투표당선이 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최대 7명의 입후보

자수가 존재한 기초자치단체까지 존재하였다.

③지역

박기관(2012)의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6·2지방선거를 분석하여, 기존의 한나라당의 연고지의 하나인 경남과 강원에서 무소속과 민주당 출신이 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절반 이상 당선되었음을 들어 지역주의의 투표행태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완화의 양상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한 황아란(2002)의 연구에서는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공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의 차별성이 적어져 지방자치의 정치적 특색이 나타나기 어려운 면을 지적하였다. 선거에서 지역의 영향력에 대하여 두 연구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른 주민의 정당 선호와 정당공천의 효과가 맞물려 나타날 경우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변수들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특성

①경력(행정인, 정치인, 교수 및 학자, 기업인)

기초단체장 후보자 개인변수들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김석우(2004)의 연구에서 후보자 개인의 경력측면에서의 분석은 정치인이 비정치인에 비하여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치인으로써의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보다 용이하

게 하는 선거 전략과 정보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력에 대한 더미변수로 정치인을 추가하였으며, 행정관료 경력과 사기업 부문에서의 이력, 교수 및 학자인 경우 그 개인의 판단력과 명성에 대한 기대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인, 기업인, 교수 및 학자로 경력을 구분하였다.

②학력

김석우(2004)의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당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이므로 더미변수들로 부여하였으며, 고졸이하, 대졸, 석사이상으로 분류하였다.

③나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나이에 따른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었으며(김석우, 2004), 연령이 득표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배상석 외, 2006)도 존재하였다. 출마자의 나이에 따른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나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추가하였다.

④3선 도전인지 여부

2002년 제 3 회 지방선거, 2006년 제 4 회 지방선거, 2010년 제 5 회 지방선거에 연이어 당선되어 3선이 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보다 더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역량 혹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3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더미변수로 구분해서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요인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34곳으로 나타났다. 3선 도전인 경우는 더미변수가 1의 값을, 2선 도전인 경우는 더미변수로 0 값을 부여하였다.

⑤ 정당공천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여전히 정당의 공천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당공천여부에 따른 득표율의 영향을 통제해주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최승범 외, 2006; 배상석 외, 2006; 김형아 외, 2008)에서 정당공천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 득표율 및 당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유의수준을 $p=.1$ 로 잡을 경우 세 연구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공천여부에 대하여 더미변수로 고려하여,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는 1, 받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분류하였다.

<표 6> 변수의 설정과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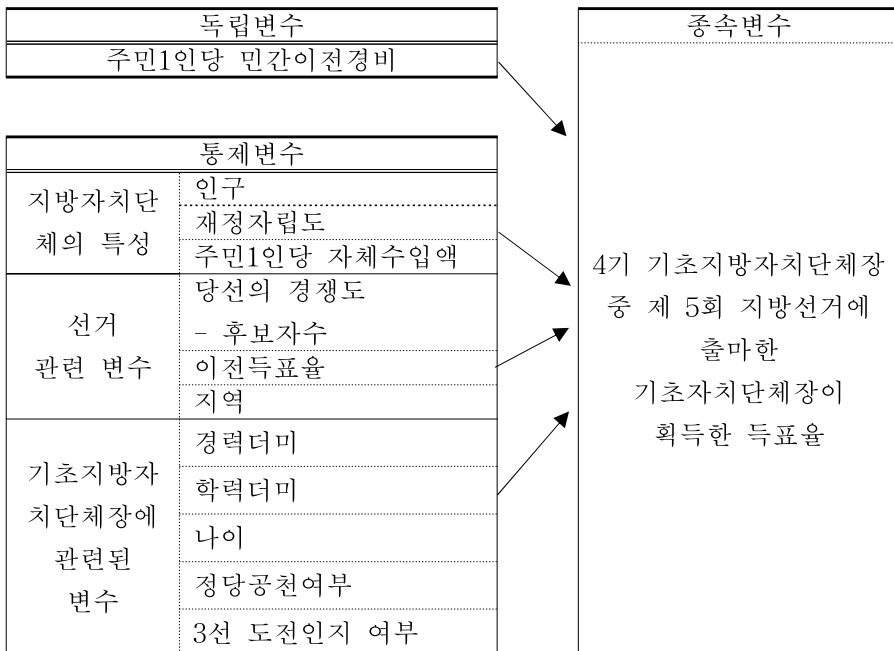
변수	세부지표		자료출처
종속변수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5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독립변수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재정고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인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정자립도	통계청 KOSIS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재정고
	선거관련	당선의 경쟁도 이전 선거의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수	지역(충청, 전라, 경상)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	경력	
		학력	
	개인의 특성	나이	
		3선 도전인지 여부	
	정당공천 여부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앞서 설명한 변수들을 통해서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개념적 틀로 나타내면 <그림 3> 와 같다.

< 그림 3 >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4. 연구의 가설설정과 분석모형

1) 연구의 가설

민간이전경비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 혹은 주민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한 지원에 대한 선호 및 증대를 위한 노력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나타날 것이므로,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민간이전경비가 주민들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지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의 규모의 변화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의 토대 하에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 설

일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연구의 분석모형

앞서 살펴 본 가설에 따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초점은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 검증이므로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득표율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득표율의 감소로 나타나는지 혹은 민간이전경비의 변화는 득표율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AS 9.1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위의 <표 >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이를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Model1]~[Model3] 과 같다.

[Model 1]

$$Y(\text{득표율}) = a + \beta_1 \logper_trans + \beta_2 rate2 + \beta_3 number + \beta_4 selfratio + \beta_5 pop + \beta_6 logper_selfrev + \beta_7 age + \beta_8 dummy + \beta_9 threetimes + \beta_{10} chung + \beta_{11} jeon + \beta_{12} kyung + \beta_{13} sch_belowhigh + \beta_{14} sch_univ + \beta_{15} sch_master + \beta_{16} carrer_admin + \beta_{17} carrer_politic + \beta_{18} carrer_scholar + \beta_{19} carrer_enterprise + \varepsilon$$

식 (1)에서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나타내며, a 는 위 모형의 절편, \logper_trans 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인 2007-2009년 사이의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평균을 자연로그 변환해준 값으로,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를 나타내며, $rate2$ 는 지난 선거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나타낸다. $number$ 는 2010년 선거에서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의 후보자수로 선거의 경쟁의 정도를 나타낸다. $selfratios$ 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의미한다. pop 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의미하며, $\logper_selfrev$ 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자

체수입액을 자연로그 변환한 값이며, *age* 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2010년 선거 출마 당시의 나이를 의미한다. *dummy*는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더미로 나타낸 것이다. *threetimes*는 제5회 지방선거가 연속적으로 3선에 도전하는 경우를 더미 변수로 나타낸 것이다. *chung, jeon, kyung* 는 지역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로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sch_belowhigh, sch_univ, sch_master* 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학력을 고졸이하, 대졸, 석사이상 으로 더미변수를 부여한 것을 의미하며, *carrer_admin, carrer_politic, carrer_scholar, carrer_enterprise*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을 행정인, 정치인, 교수 및 학자, 기업인으로 더미 변수를 의미한다. 마지막 항인 ε 는 오차항 이다.

[Model 2]

$$Y(\text{득표율}) = a + \beta_1 \logper_trans + \beta_2 rate2 + \beta_3 number + \beta_4 pop + \beta_5 age + \beta_6 dummy + \beta_7 threetimes + \beta_8 chung + \beta_9 jeon + \beta_{10} kyung + \beta_{11} sch_belowhigh + \beta_{12} sch_univ + \beta_{13} sch_master + \beta_{14} carrer_admin + \beta_{15} carrer_politic + \beta_{16} carrer_scholar + \beta_{17} carrer_enterprise + \varepsilon$$

[Model 3]

$$Y(\text{득표율}) = a + \beta_1 \logper_trans + \beta_2 rate2 + \beta_3 number + \beta_4 selfratio + \beta_5 pop + \beta_6 logper_selfrev + \beta_7 age + \beta_8 dummy + \beta_9 threetimes + \beta_{10} sch_belowhigh + \beta_{11} sch_univ + \beta_{12} sch_master + \beta_{13} carrer_admin + \beta_{14} carrer_politic + \beta_{15} carrer_scholar + \beta_{16} carrer_enterprise + \varepsilon$$

[모형1]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선거와 관련된 특성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Full Model이며, [모형2]~[모형3]는 Reduced Model로, [모형2]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시켰으며, 마지막으로[모형3]은 지역과 관련된 더미변수를 제외시키고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7> 각 변수의 변수명과 정의

	변수명	정의
독립변수	logper_trans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2007-2009년 평균값에 자연로그를 취함, 단위: 원)
종속변수	rate	제 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의 득표율
통제변수	rate2	이전(2006년 제 4회 지방선거) 득표율
	number	후보자수
	selfratio	재정자립도(2007-2009년 평균, 단위: %)
	pop	인구(2007~2009년 평균, 단위: 명)
	logper_selfrev	주민1인당 자체수입비 (2007-2009년 평균값에 자연로그를 취함, 단위: 원)
	age	나이(세)
	dummy	정당공천여부 더미변수 (공천받음=1, 공천받지않음=0)
	threetimes	3선 도전인지 여부 더미변수 (3선 도전=1, 2선 도전=0)
	local	지역더미(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career	경력 더미변수 (행정인, 정치가, 교수 및 학자, 기업인)
	sch_	학력 더미변수 (고졸이하, 대졸, 석사이상)

제4장 실증 분석의 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의 확인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2010년 제 5 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한나라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많았으며, 민주당과 자유 선진당, 국민중심연합의 순이다. 소속정당에 따른 당선 여부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91%의 당선율로 소속정당 중 가장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선진당(60%), 한나라당(56%)의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의 경우 당선율이 35%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정당공천여부에 따라 득표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의 경우, 행정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기타와 정치가의 이력이 각각 14명과 13명 이었다. 기타의 경우 의사, 법조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을 분류하였다. 행정인과 기타의 경우 당선율이 57%로 동일하였고, 정치인의 경우 54%의 당선율을 보였다. 교수 및 학자는 50%의 당선율을 보인데 반하여 기업인의 경우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경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인과 정치인, 기타의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표 8 > 본 연구의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당선	낙선	계	당선율(%)
소속정당	무소속	14	26	40	35
	한나라당	32	25	57	56
	민주당	20	2	22	91
	국민중심연합	1	1	2	50
	자유선진당	3	2	5	60
경력	행정인	52	39	91	57
	정치인	7	6	13	54
	교수 및 학자	3	3	6	50
	기업인	0	2	2	0
	기타	8	6	14	57
학력	고졸이하	9	9	18	50
	대졸	19	20	39	49
	석사	27	16	43	63
	박사	15	11	26	58
연령	40대	6	2	8	75
	50대	33	19	52	63
	60대	30	27	57	53
	70대	1	8	9	11

기초자치단체장의 학력의 경우 석사학위를 소지한 기초자치단체장이 43명, 대학 졸업은 39명,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초자치단체장이 26명이었으며, 고졸이하의 경우 18명으로 관측되었다. 각 구분별 해당자 수의 대소와는 다르게 당선율은 49%에서 63%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령은 60대가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52명) 그 뒤를 이어 70대가 9명, 40대가 8명으로 측정되었다. 당선율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선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9> 에서는 5기 지방선거가 3선 도전인지, 재선 도전인지에 따

른 구분과 선거결과를 나타내었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3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어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3번 해당지역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3선에 도전인 경우로 나누어,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구분하였다.

3선 도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하여 보면,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울산중구,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양주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강원원주시, 강원양양군, 강원화천군, 충남천안시, 충남태안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남광양시, 전남완도군, 전남무안군, 경북경주시, 경북칠곡군, 경북울진군, 경남진주시, 경남고성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으로 총 34개의 지방자치단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제5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선 도전여부를 추가하여 기술통계 해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3선 도전여부와 선거결과

3선 도전 여부		
	3선 도전인 경우	2선 도전인 경우
당선	15	55
낙선	19	37
계 (명)	34	92
당선율(%)	44.1	59.8

3선 도전인 경우가 34명이고, 2선 도전인 경우가 92명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3선 도전인 경우의 당선율은 44.1%를 보였으며, 2선 도전인 경우는 59.8%의 당선율을 보였다. 기술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봤을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3선 도전인지 여부에 따라 득표율에 미칠 영향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정당공천여부와 선거결과

정당공천여부		
	공천 받음	공천 받지 않음
당선	56	14
낙선	30	26
계 (명)	86	40
당선율(%)	65.1	35.0

앞서 살펴본 대로 소속정당에 따라 당선율이 달라진 것과 같이 정당공천여부에 따라 당선여부를 살펴보면 위의 <표 10>과 같다. 공천을 받은 경우 5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고, 공천을 받지 않은 경우는 4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다. 당선율을 통하여 비교해보면 공천을 받은 경우는 65.1%의 당선율을 보이며, 공천을 받지 않은 경우는 35%의 당선율을 보여 정당공천여부에 따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 전에 지역별로 기술통계를 해보면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크게 5지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11>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합친 구역을 의미한다. 경상권에서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수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이 30명 이었으며, 전라도가 26명, 충청도가 18명,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12명의 순 이었다. 각 지역별 당선율을 살펴보면 전라도가 85%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가 63%, 강원도가 58%, 충청도가 50% 이었다.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수가 3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수도권은 당선율에 있어서 23%로 저조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지역에 따른 구분과 선거결과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당선	7	7	9	25	22
낙선	23	5	9	15	4
계 (명)	30	12	18	40	26
당선율(%)	23	58	50	63	85

2) 인구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기술통계한 값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과 같다. 인구수가 최소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1만 176명이고, 최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5만 3,746명이다. 또한 인구수의 평균은 22만 3,747명으로 나타났다.

<표 12> 기술통계량

지방자치단체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					
인구수(명)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223747.4	205614.7	4.23E+10	943570	10176	953746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자립도 평균(%)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27	16.159	261.113	77	7.9	84.9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원)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505491.7	289614.3	8.39E+10	1500765.803	71176.91	157194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측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값인 자체수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눈 값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최소값은 7.9%이며, 최대값은 84.9%였다. 분석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7%로 측정되었다.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주민수로 나눈 값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재원과는 달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금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주민의 수로 나누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의 값을 평균 내어 본 결과 최소값은 7만 1177원이며, 최대값은 157만 1,943원이었다. 평균은 50만 5,491원의 값의 규모를 보인다.

독립변수인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기술통계값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과 같다. 최소값은 5만 7,314원이며, 최대값은 157만 2851원 이었다.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평균은 38만 1242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민간이전경비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원)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381242.43	294760.18	8.688E+10	1515537.2	57314.042	1572851.2

3. 선거 측면

아래의 <표 14>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26명의 득표율에 따른 당선과 낙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득표율이 높을수록 당선율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30%이하의 득표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낙선하였고 30%대의 득표율의 경우 약 30%의 당선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득표율이 올라갈수록 당선율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40%대의 득표율의 경우 당선율은 44.1%에 그쳐 득표율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곧 당선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표 14 > 득표율에 따른 구분과 선거결과

득표율	당선	낙선	계(명)	당선율(%)
0-30%	0	19	19	0
30-40%	8	18	26	30.8
40-50%	15	19	34	44.1
50%이상	47	0	47	100.0
계 (명)	70	56	126	55.6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제4회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 역시 다음 기인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전 득표율을 수집하였다.<표 15> 최소값의 경우 28.37% 이었으며, 최대값은 90.0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 득표율의 평균값은 약 55.46%이다.

< 표 15 > 기술통계량

선거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					
이전 득표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55.46	11.77	138.52	61.68	28.37	90.05
득표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44.71	14.93	222.93	73.88	5.69	79.57
후보자수(명)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3.22	1.109	1.23	5	2	7

제4회 지방선거의 이전 득표율과 더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제5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득표율의 최소값은 5.69%이며, 최대값은 79.57%이다.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서 득표율

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득표율의 범위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평균은 44.71%이다.

득표율과 더불어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값은 후보자수이다. 후보자수가 많아질수록 표는 분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득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후보자수의 최소값은 2명이며, 최대값은 7명이다. 무투표당선의 경우 득표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연구에서 제외하였기에 최소값은 2명이다. 후보자수의 평균은 3.22명으로 나타났다.

< 표 16 > 후보자수와 선거결과

	후보자수					
	2	3	4	5	6	7
당선	22	30	12	4	1	1
낙선	12	23	11	7	2	1
당선율 (%)	64.71	56.60	52.17	36.36	33.33	50.00
전체(명)	34	53	23	11	3	2

본 연구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후보자수에 따른 당선율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전반적으로 후보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선율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후보자수가 3명이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53개로 가장 많았고, 2명이었던 곳이 34곳, 4명이었던 곳이 23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항 (intercept)	-1.08E1 (3.81E1)	-2.02 (3.07E1)	-2.59E1 (3.84E1)
민간이전경비 (logper_trans)	4.73* (2.46)	4.00* (2.35)	6.10** (2.43)
이전 득표율 (rate2)	0.25** (9.56E-2)	2.35E-1** (9.35E-2)	2.62E-1*** (9.23E-2)
후보자수 (number)	-4.97*** (9.61E-1)	-5.17*** (9.40E-1)	-5.11*** (9.71E-1)
재정자립도 (selfratio)	-1.28E-1 (1.28E-1)		-2.53E-1** (1.07E-1)
인구 (pop)	-2.36E-5** (1.08E-5)	-2.63E-5*** (9.31E-6)	-2.33E-5** (1.1E-5)
주민1인당 자체수입비 (logper_selfrev)	2.71E-1 (1.88)		6.33E-1 (1.90)
나이 (age)	-1.04E-1 (1.60E-1)	-1.10E-1 (1.59E-1)	-9.30E-2 (1.63E-1)
정당공천여부 (dummy)	1.12E1*** (2.20)	1.15E1*** (2.17)	1.03E1*** (2.21)
3선 도전인지 여부 (threetimes)	-6.27*** (2.38)	-6.15*** (2.33)	-6.42*** (2.44)
지역더미_충청도 (chung)	-2.14 (3.95)	-4.36E-1 (3.61)	
지역더미_전라도 (jeon)	7.95* (4.03)	1.05E1*** (3.28)	
지역더미_경상도 (kyung)	3.74 (3.55)	5.78* (3.00)	
학력더미_고졸이하	-2.46	-1.93	-3.29

(sch_belowhigh)	(3.71)	(3.66)	(3.77)
학력더미_대졸 (sch_univ)	-3.70 (2.98)	-2.77 (2.85)	-5.14* (3.02)
학력더미_석사 (sch_master)	-1.28 (2.88)	-7.05E-1 (2.79)	-1.43 (2.90)
경력더미_행정인 (career_admin)	4.66 (3.19)	5.03 (3.15)	3.70 (3.21)
경력더미_정치인 (career_politic)	1.98 (4.49)	1.24 (4.42)	1.99 (4.50)
경력더미_교수 및 학자 (career_scholar)	-3.98 (5.44)	-3.12 (5.35)	-5.66 (5.56)
경력더미_기업인 (career_enterprise)	-2.17 (8.54)	-2.55 (8.49)	-2.98 (8.70)
R-square	0.5873	0.5825	0.5453
R-square Adjusted	0.5079	0.5116	0.4779
N	126	126	126

주 :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통제변수 중 어떠한 변수를 제외함 없이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1]에 따르면,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p=.05$ 로 하였을 때는 5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의수준을 $p=.1$ 로 하였을 때는 2개의 변수가 추가되어 7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확률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의수준 $p=.01$ 에서 유의미)으로는 후보자수와 정당공천여부, 3선 도전인지 여부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당공천여부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수 변수와 3선 도전인지 여부 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전 득표율과 인구는 득표율에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

였으며, 이전 득표율 변수는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구 변수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은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자체수입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나이, 지역더미변수로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우, 학력더미로 고졸이하, 대졸, 석사인 경우, 경력더미로 행정인, 정치가, 교수 및 학자, 기업인인 경우이다.

1. 모형1 결과의 해석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모형에서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킨다.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4회의 이전 득표율이 높은 경우 제 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도 정(+)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득표율이 높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도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경력더미변수들의 경우 행정인일 경우와 정치가일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수 및 학자인 경우와 기업인인 경우는 득표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으나, 모든 더미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더미변수들의 경우 역시 득표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나이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득표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여부와 3선 도전인지 여부는 1%의 유의수준에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선 도전인 경우는 재선 도전인 경우보다 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선 도전인 지자체장의 득표율이 3선 도전이 아닌 경우의 지자체장 득표율보다 낮게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볼 때, 3선인 경우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두 번의 임기기간 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재선도전에 비하여 3선 도전인 경우 이미 8년의 임기동안 장기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기에 회고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현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앞으로 운영해나갈 지방행정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것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미경(201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방행정과 경제상황에 대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이 만족스러운 유권자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회고적 투표행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투표행태 결정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그 동안의 지자체장의 행정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 지지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의 경우 인구가 증가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증가할 경우 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의 이유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득표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의 경우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변수는 당선의 경쟁도를 후보자수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 1%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수가 증가할수록 득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수가 많을수록 표는 분산되기 마련이므로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살펴보면,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라도의 경우 10%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전라도인 경우 득표율은 증가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2. 모형2과 모형3 결과의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나타내는 변수인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자체수입비를 제외한 [모형2]에 따르면 유의수준 $p=.05$ 로 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는 이전 득표율, 후보자수, 인구수, 정당공천여부, 3선 도전인지 여부, 전라도인 경우로 6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1$ 로 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는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와 경상도 지역더미가 추가되어 총 8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1]과 비교하여 경상도가 [모형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수였으나,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자체수입비를 제외한 경우 유의수준 $p=.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차이가 있다. 또한 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했던 인구가 1%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도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지역주의를 고려한 변수인 지역더미 변수들을 제외한 [모형3]에 따르면 유의수준 $p=.05$ 로 보았을 때,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 이전 득표율, 후보자수, 재정자립도, 인구수, 정당공천여부, 3선 도전인지 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총 7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p=.1$ 로 보았을 때는 학력더미 중 대학졸업인 경우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어 총 8개의 변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모형1]에서 10%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했던 값에서 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역더미변수를 제외한 [모형3]에서는 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한 단위 증가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은 0.253퍼센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기존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와의 연구결과 공통점은 후보자의 수와 정당공천과 관련한 변수였다. 후보자의 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득표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승범 외(2006)의 연구, 김형아 외(2008)의 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정당공천 변수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본 연구에서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최승범 외(2006), 배상석 외(2006), 김형아 외(2006)에서의 연구 모두 득표율에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의 수와 정

당공천여부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 범위를 달리하고, 모형의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는 변수로는 출마자의 나이와 지역변수, 경력과 같은 변수였다. 출마자의 나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상석 외(2006)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의 경우가 득표율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김형아 외(2008)의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이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이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변수들의 연구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 범위가 다름에 따라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다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06년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동일지역에 출마한 경우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민간이전경비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민간이전경비의 증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증가라는 정치적 지지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간이전경비를 늘릴 유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민간이전경비의 사용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재량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민1인당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이 단체장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지출이 민선단체장 연임에 영향을 준다면, 민선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운용은 주민들이 현 민선단체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도로 나타나는 평가에 따른 결과가 민선단체장 연임의 결정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이전경비 이외의 변수들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당공천을 받은 경우 정당공천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득표율에 더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경쟁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5회 지방선거에 출마가 3선 도전인 경우는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선 도전 시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2번의 임기이자, 8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파악하고, 운용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회고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전 득표율의 경우는 득표율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유의미한 변수였다. 이전 득표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로 해석될 때 비교적 다음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수의 증가는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구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발전정도는 커지지만, 인구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의 반영으로 표가 분산되게 되므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 얻게 되는 득표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의 결과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즉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도출됨에 따라, 민간이전경비의 집행 및 운용이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의 확장 및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이전경비제도의 본래적 취지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고, 재정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라는 유인의 존재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 선심성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민간이전경비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정책적 의의를 살리고,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한을 가함이 필요하다. 민간이전경비제도에 대한 제한은 상한제도입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상한제 도입은 예산편성시 상한수준을 기준경비로 포함시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기준 이상의 과도한 예산팽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경비가 특정 사업 및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검토결과 적절하지 않는 사업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및 환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동안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 통제해 준 변수 이외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와 현 지방자치단체장에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지 못한 것이다. 선행연구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을 다른 변수들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점을 본 연구에서도 고려하였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가설과 실증적 분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의 경제적인 충격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 혹은 악화의 영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주요 이슈가 되는 쟁점이 있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론이 변화하였을 가능성 혹은 통제된 변수들 이외의 요인이 중점적인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보아 추가한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지지의 평가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득표율을 설정하였다. 득표율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선거의 승패가 단순다수제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득표율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타 후보자들보다 득표율이 높기만 하면 당선될 수도 있으며, 후보자의 수에 따라 당선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득표율로만 분석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서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득표율 뿐만 아니라 당선여부 까지도 함께 분석할 경우 이러한 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 민간이전경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추가하여 연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의 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 등을 통제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참고 및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사 여지가 있는 지방재정 항목운용에 대해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후속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운호.(2000).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_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36(4): 227-241
- 강태구.(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권경환.(2005).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9(3)
- 김석우.(2004). 기초단체장 총원과정에 관한 연구 :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8(1): 215-233.
- 김정기.(199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1): 181-198
- _____.(2006). 기초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6년 5.31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형아 외.(2008).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투표행위: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상태에 반응하는가, 「행정논총」
- 박기백.(2002).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 박이석.(2005).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상석·강주현.(2006). 지방재정지출유형이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6(4).
- 유태현·한제한.(2007).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 윤정우·권영주.(2012). "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재정분석 건전성과 효율성 지표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7(1): 95-120
- 이달곤.(2004). 「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

- 조기현·하능식(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최미경.(2011). “한국 투표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군형발전연구」, 2 (2)
- 최승범·이환범.(2003).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실태와 정책대응, 연구원자료 25
- 허강무.(2002).보조금행정에 대한 법적통제보조금행정에 대한 법적통제, 전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아란.(2011).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2011.3, 217-236
- Berganza, Juan C. (2000). “Two Roles for Elections: Disciplining the Incumbent and Selecting a Competent Candidate.” *Public Choice*, 105: 165-193.
- Brender, A. (2003). “The Effect of Fiscal Performance on Local Government Election Results in Israel: 1989~199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2187-2205.
- Happy, J. R. (1992). “The Effect of Economic and Fiscal Performance on Incumbency Voting: The Canadi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1): 117-130.
- Lowry, Robert C., Alt, James E., & Ferree, Karen E. (1998). “Fiscal Policy Outcomes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in American St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59-774.

Abstract

Private transfer expenses impact on the rate of the vote basic local government chief

Minchae K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vate relocation expenses, with the nature of subsidies to encourage th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Supporting the activities that can be private transfer expenses of the private sector to leverage diversity, flexibility, and efficiency. However, the arbitrary al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length of waste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Private transfer cost becomes a waste, municipal enhance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e reverse effect is performed expenditures, research is needed.

By increasing the cost transfer private, in this study, the cause of the problem related to cost transfers the private sector, we will try to determine whether those occurred incentive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mprove political support. Also, trying to figure out whether the cost of operation lead to political evaluation of residents to the local government.

"Percentage share of local government chief basis will increase with the increase in expenses private transfer" is i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research interests, local government chief basis of the fourth stage, the next election of target municipalities that ran for the period of five local elections.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to private transfer costs per inhabitant. Control variable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set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related to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chief.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percentage of votes the incumbent mayors were elected in 2006 to run for local elections 5th 2010, heads of municipalities that have earned.

Research analysi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increase in costs per resident private transfer,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percentage share of the length of municipalities. This was the result that it is possible to know the operation of private transfer expenses of local government is the chief influence the political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chief residents. Led to political support increased expenses relocation private that the increase percentage of votes in length local government basis, in order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election of the next election, the length of local governments, the incentive for increasing the private transfer expenses and could be interpreted as acts on. In addition, the spread of previous private security operations, and problems pointed out by political allocation,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these incentives.

keywords : private transfer expense, political
assessment, local authorit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Vote

Student Number : 2010-22108